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10월 15일(주일) 제1462호

33번째 러브소나타 이야기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New Beginning)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New Beginning)'를 주제로 지난 10월 11일(수)과 12일(목) 일본 센다이 선플라자홀에서 막 오른 러브소나타 '미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를 동안 현장 참가자 2,648명, 온라인 참가자 2,219명이 참여했고, 일본인 참가자 168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관련 기사 6~7면>.

/ 홍하영, 김다예 기자

낙태 없는 세상 함께 만들기!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생명을 지키고, 낙태 없는 세상을 만드는 기도가 한창이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11월 5일(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명동성당 들머리 앞(서울 중구 명동길 66, 농협은행 명동지점 건너편)에서 이어진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낙태 종식을 위한 국제 기도 캠페인이다. 64개국에서 100만 명이 참여한다.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낙태의 위험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며 기도하는 '현장 릴레이 기도'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낙태 종식과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매일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현장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홈페이지(40daysforlif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703-4620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양재온누리교회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10월 2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는 대한민국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 차원의 실천 방안을 마련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서는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 '저출산 위기극복의 돌파구의 성경적 제안 공모', 이정민 교수(한동대) '성경적 자녀교육', 신무환 장로 '인구절벽, 성경적 세계관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문제 인식 및 공유를 위한 사전 강의를 한다. 근본 원인과 해결을 위한 주제 강의도 이어진다. 이재훈 담임목사 '인구문제, 영적 각성 및 의미', 이철 장로 '대한민국 인구문제와 교회 차원의 문제 해결방향', 박태성 집사 '온누리 인구문제 설문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강의한다.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리더십과 성도들의 패널 토의도 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을 대상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돌파하기 위한 성경적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린다. 행사 당일 우수작을 발표하고, 현장 투표로 최종 순위를 선정할 예정이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한국로잔생명위원회 '생명포럼'

10월 21일 오후 2시 서빙고 한동홀

한국로잔 생명위원회에서 생명에 대한 논의와 생각을 나누는 '생명포럼'을 개최한다. 10월 21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지하 1층)에서 열린다.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와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생명과 환경팀이 주관한다. 이번 생명포럼에서는 '죽음은 선택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조성돈 교수(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 '자살, 극단적 선택', 박상은 원장(한국로잔 생명위원장, 샘병원 미션원장) '의료조력자살 및 연명의료중단, 마지막 선택'을 주제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한다. 한국로잔생명위원회 '생명포럼'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2138-0807

/ 홍하영 기자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잔혹해 보이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믿음의 절정이란 한계를 뛰어넘는 시험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통해 온전해지고, 굳건해집니다.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통해 실체가 되고, 현실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의 절정을 이루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이전에 경험한 시험과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혀 다른 영역으로 이끌어 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실 때 이러한 시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성도에게 믿음의 절정에 이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심으로 믿음을 끌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잔혹해 보이는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내버려 두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전혀 없는 믿음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없는 교회입니다. 이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절정을 이루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2절).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자녀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사랑하는 독자, 자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학적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창세기> 11장부터 21장에 이르러 주신 하나님의 반복되는 약속과 충돌합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은 때로 하나님이 앞서 주신 약속과 현재 주시는 명령이 충돌하거나 모순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다면 약속하신 분이 현재 주신 명령이 과거의 주신 약속과 충돌하더라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5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이삭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함께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했고, 이삭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이?’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7-8절).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감정이 흔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담대하고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절정을 이루는 교회

창세기 22:1~19

“믿음의 절정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양한 시험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뛰어넘어 문제를 해결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히 11:17-19).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정에 이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12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친밀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닮습니다.

믿음의 절정, 십자가 대속의 복음 체험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단하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번제가 중단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양을 통해서 번제가 완성됩니다. 아브라함도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완성에 이르렀고, 하나님도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도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솟아 한 마리가 덩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13절).

믿음의 절정에 이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낮 놓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은 ‘일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른 성도의 고백은 언제나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십자가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양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는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은 희생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온전히 드렸을 때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양 때문에 이삭이 살아났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원은 교제 사건입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의 교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교제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마지막 시험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데서 교회의 능력이 나옵니다. 믿음의 절정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았음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셔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양한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특별기고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의 의의 2

하나님 허락하신 결혼제도에 순종하면...



하선희 집사
(미래성장위원회)

지난 5월 방한한 옥스포드 대학의 세계적인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

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것을 주장했다. 덴마크, 프랑스, 미국 등 출산 선진국의 출산 중에서 30% 이상이 비혼 출산인데 비혼 출산이 아니었다면 이 국가들이 1.6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도덕과 비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너그러운 관점으로 결혼 전 동거 등을 바라보고, ‘결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류의 주장을 접할 때면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실증 결과들이 이에 대한 반론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 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인 2.1에도 못 미치는 기준인 1.6 이상을 출산 선진국의 예로 든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주장은 ‘역사를 옆으로 읽는 것(reading history sideways)’이라고 불리는 오류에 해당한다. 결혼 패턴과 출산율의 국가 간 차이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표가 되지 않는다. 한 나라의 복잡한 문화적 특징, 사회 제도, 경제 구조 및 일련의 공공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고, 이를 모두 분류하기에는 너무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 패턴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단순히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추정하는 모델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상은 문제 원인 잘못 진단해서 잘못된 처방을 한다!

오히려 실증 연구 결과, 전통적인 결혼이 여성들이 자녀를 가지도록 만드는 유인을 극적으로 증가시킨다. 2022년 10월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이 하락한 이유는 혼인 연령의 증가와 상관관계를 보였지, 혼외 출산의 증가분이 기존 출산의 감소분을 보상하지 않았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유교 사상 등 사회적 낙인에 따른 낮은 비혼 출산율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기존자의 출산율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출산율의 감소는 이성 간 혼인율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실증적으로 비혼 여성이 증가하면 출산이 감소하는 반면, 낙태와 혼외 출생이 증가한다. 통계상 30년 동안 가임기에 혼인하는 여성의 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따라 순종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 실천으로 연결된다.”

가 130만 명 감소할 경우 90만 명이 낙태를 당하고, 60만 명의 혼외자가 생긴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비혼 출산에 대한 낙인 때문이 아니다.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혼인 연령의 증가와 그와 관련된 다른 요인들과 연관된다. 따라서 결혼을 너그럽게 새로 정의한다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구대체율을 웃도는 나라들(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의 혼외 출산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이를 입증한다. 각 국가들이 비혼 출산이나 동성혼 등 다양한 가족을 합법화하고 장려하기 전후의 출산율을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가족이 합법화되기 전인 1970년 대비 2020년의 출산율이 대폭 하락했다.

혼외 출산은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되지 않을뿐더러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매기 겔러거(캘리포니아)는 “성관계는 아기를 만들고 사회는 아기를 필요로 한다. 아기들은 엄마와 아빠가 필요하다. 이는 모든 문명이 결혼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했다. 결혼은 체제유지를 위해 미래 시민인 아기들에게 아빠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였다. 혼외 출산은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양산하는데, 아버지의 부재가 야기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미국 총기 난사범의 82%가 양친과 같이 살지 못한 역기능 환경에서 자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최근 급증하는 문치마 살인 등 강력 사건 역시 범인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분노를 표출하거나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경우도 많다.

아버지의 부재는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위기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 연구(JP De Gance) 결과, 미국 청년의 50%만 유년 시절 혼인 상태의 부모와 자랐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25~29세의 미혼 남성의 경우 87%가 혼인 상태의 부모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만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 그 자녀의 20%만 교회에 출석하는 반면,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면 어머니의 교회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녀의 66%~75%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주셨다.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아버지를 물리, 정서, 영적으로 덜 존경스럽고, 덜 필요한 존재로 만들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다. 아버지를 아이 인생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비혼 출산의 장려야말로 아버지의 필요성을 축소하는 극단적인 예이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인구문제 성경적 대안과 교회의 실천 방안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야기이다. 이를 성취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셔서 말세에 신부를 찾으시는 이야기인 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난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 하는 결혼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 놀랍지 않다. 결혼이 깨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존재, 신앙이 자녀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다.

달라스 월러드(철학자)는 “지붕 위에서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리면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다”라고 했다.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비혼 출산의 장려와 같이 결혼을 새로 정의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엄마와 아빠만이 채워줄 수 있는 구멍을 채워지 못한 상처 입은 다음세대를 양산하고, 이들의 신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처방을 한다.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 하면서 인간의 번영에 가장 좋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직접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저출산과 같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명문대 석학의 의견이 아니라 오는 10월 28일 있을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이하 ‘OFFC’)'에서 인구 문제의 성경적 대안과 교회의 실천 방안을 들어야 한다. 당면한 국가가 소멸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차세대 및 대학 청년, 장년 모든 부서가 연합해서 OFFC를 준비하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행사다.

영원히 살 어린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특권이자 책임이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따라 순종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의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정반대의 이야기만 가득한 세상을 사느라 놓치고 있던 진리를 하나님의 희망인 교회를 통해 신구세대가 함께 모여 다시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그리스도인은 세속 문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디즈니 회사의 가수에서 세계적인 팝스타로 성장한 ‘마일리 사이러스’ (Miley Cyrus)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그녀는 “성적 대상으로 동물만 아니고 성인이면 누구라도 괜찮다. 합법적인 관계라면 모두 열려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결혼과 이혼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없이 많은 콘서트에서 자선기금을 모아 천재지변, 질병, 고아, 소외된 아동, 동물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이러스의 성 관념과 사회정의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세속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대체로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인다. **첫째, 방주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세속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눈과 귀를 막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모든 것을 처리할 때까지 안전한 곳에 격리된 상태를 유지한다. 아미시(미국 펜실베이니아 지방의 재세례파 계통 종파, 검은 옷을 입고 옛날 방식의 삶을 유지한다)나 몰몬교 신도 같은 고립된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둘째, 반사적으로 세상을 향해 공격한다.** 이것을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 부르며 세속 문화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율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 영화나 TV에 나오는 폭력적, 선정적 장면 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다. **셋째, 세속의 문화와 타협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속적인 삶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율법주의에 대한 반발이거나 주변의 세상과 등지고 살 수 없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자신이 이 세대를 열심히 본받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이처럼 방주형, 공격형, 타협형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보이는 반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문화 속에 살되, 세상을 닮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니엘> 1장을 보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명령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

“우리가 이 시대의 세속적 문화로 들어가는 궁극적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해서 화형을 당한다. <다니엘> 6장에서도 다니엘은 금지하는 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 사자굴에 내던져지는 벌을 받게 된다. 세 경우 모두 그들은 처한 세속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며 그 속에서 성실히 살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삶을 살았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세속 문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질문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예수님은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에서 로마법에 따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셨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들이 존중하는 율법을 잘 알고 지키셨지만, 율법 정신과 상관없이 율법의 외형만 지키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셨다. 그 문화 속에 어울려 사셨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난 세속의 제도나 문화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도전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문화를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 전파의 접촉점을 만들고, 대화의 소재를 찾기 위해 텔레비전을 보고,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문화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소개로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다. 하늘이 열리고 내려온 그릇 안에 들어 있는 율법에서 금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소리에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는다. 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함이 율법에 어긋나지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간다.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와 함께이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하라고 명령하신다. 사도 바울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지라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면 먹고, 연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이면 먹지 말라고 가르친다. 복음 전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익한지 아닌지가 기준이다.

우리가 문화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잣대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세속적 문화로 들어가는 궁극적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세상 문화로 들어가되,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즉,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선택하고 소비하느냐는 것보다 그 문화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 성경적 세계관으로 답하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인구절벽 원인

강애리 목사
(드보라선교회,
온누리세계관학교)

신뢰도 높은 설문기관 바나그룹(Barna Group)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직 6%의 기독교인들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가 없어 알 수 없다. 성경적 세계관은 단순한 가지치기가 아닌 문제의 근원인 뿌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다.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의 원래 목적과 질서, 우선순위를 성경 말씀에 따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성경적 기준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따라야 하며,

성경 말씀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준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이 임박해 있다. 인구절벽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혹자는 지금과 같은 속도의 출산 감소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아닐까 전망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성경의 메타내러티브를 근거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반성경적이며 반출산적인 문화에 “NO”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창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하나님 창조사역의 대리인으로 임명하셨다(창 1:27~28).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가정이라는 첫 번째 사회를 허락하셨고, 그 부부의 하나 되는 결합 방식으로 성과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창 2:24~25). 가정 안에서의 성과 그 결과로 생기는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대행하는 가정에 주시는 그분의 선물이며 축복이다.

타락: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부부 관계를 포함한 인간 사이의 관계,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부여한 인간의 좋은 측면들은 남아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죄로 인해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타락은 ‘세상의 문화’라는 뱀의 유혹을 따라 다양한 성적 욕망을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성경은 결혼 밖의 성관계, 즉 혼전, 혼외, 근친, 동성, 수간 등을 모두 간음과 음행의 죄로 규정한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다. 죄가 없으시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반성경적인 문화와 제도를 분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것을 명령받았다.

우리의 자녀들은 10여 년 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성관계를 권장 받았다. 동성애-동성혼을 보호하도록 교육받았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남자와 여자의 성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성별(젠더)을 인정해 주도록 강요받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이것을 더 높은 법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이다. ‘생활동반자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이라는 제도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며, 낙태를 제한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재의 결정은 간음과 음행의 결과로 생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없애려는 시도다.

오늘날 저출산 인구절벽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사역은 회피하고, 성적 즐거움 자체만 추구하는 반성경적 문화가 그 바탕에 있다. 이로 인한 결혼 연령 상승은 필연적으로 피임과 낙태 경험 증가, 난임과 불임 증가로 연결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잠 14:12).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길, 반성경적이며 반출산적인 문화에 “NO”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성-생명-가정의 문화를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복된 생명의 길이다.

맛있는 말씀 해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시 37:4)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마음이 어려운데 ‘무조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다. 오히려 성도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시 37:1, 8) 세상의 악함에 나쁜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되고, 원망하지 말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악한 세상을 내 열심과 인내로 참으면 후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일까?

〈시편〉 37편은 ‘지혜시’ 또는 ‘교훈시’라고 알려져 있다. 히브리어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다. 〈시편〉 37편은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는 것에 대해 성도들이 그 어떤 비판이나 나쁜 감정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악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신실하

게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악한 세상을 마주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분노와 시기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 받은 성도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데도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의인은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에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고자 한다. 의인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 그때 비로소 악인의 번성함에 흔들렸던 분노와 시기의 감정이 사그라진다. 악인들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고, 푸른 채소같이 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던 의인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의 빛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와 땅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인내했기 때문이다. 〈시편〉 37편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선한 계획을 믿고 바라보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감정 때문에 쉽게 분노와 시기를 느낀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의인들에게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기뻐하라고 말한다. 여기서 히브리어 ‘신실함’은 ‘에무나’로, 변함없는 일관된 사랑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만남과 교제를 즐거워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진정한 의미이다.

나의 감정으로는 어렵지만 믿음으로 결정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마음먹으면 육신적인 분노와 시기가 사그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소원이 나를 가

득 채우게 된다.

이 ‘지혜시’는 다윗의 경험에서 들려지는 교훈이다. 다윗은 오래전 사울과 같은 일시적인 악인의 행동을 보고 무척 힘들어했었다. 하지만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이 믿음의 결정을 한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참된 의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교훈하고 있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교회

10월 16일~22일
〈에베소서〉 1:1~4:6



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떠한지 묵상하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게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유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시며,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묵상포인트 1: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 및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다루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성령의 인치심으로 흠 없

묵상포인트 2: 에베소교회는 과거에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이방인 교회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높은 담을 그분의 피로 허무셨다. 율법 조문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한 새사람’(교회)이 탄생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방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 됨과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묵상하자.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며,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기에 자랑할 수 없다. 우리는 연약 바깥에 멀리 있던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예수님은 모퉁이돌이자 화평이 되셔서 성도 간의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이자 처소로 지어져 간다.

묵상포인트 3: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비밀’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한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밝혀졌다. 바울이 언급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바울이 드린 기도가 무엇인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 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자.

▶하나님의 경륜이자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하나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환난이 성도들의 영광이기에 낙심하지 말기를 권면한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바울은 에베소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가기를 간구했다. 바울의 기도 중에서 내가 붙들고 기도할 부분을 점검하고 나의 기도로 바꾸자.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돌아보자.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온전한 화해를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 됨을 회복할 지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아는 만큼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할 품성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적용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친구를 위해서!

제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제 친구는 최근 일과 인간관계 등 여러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친구에게 고향집이 있었는데 혼자 지내면서 관리가 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치료 받고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빨리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친구가 입원해있는 동안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치료가 잘 돼서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기도해주십시오.

치료 받는 동안만큼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친구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가 마련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친구가 버겁고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기를, 일과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마음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New Beginning)’

11~12일 일본 센다이 선플라자홀에서 러브소나타 ‘미야기’
현장 2,648명, 온라인 2,219명 참석, 일본인 168명 예수 영접

일본에서 또 하나의 선교 역사를 썼다. 지난 10월 11일(수)과 12일(목) 일본 센다이 선플라자홀에서 33번째 러브소나타 ‘미야기’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New Beginning)’를 주제로 막 올랐다. 이틀 동안 현장 참석자 2,648명(리바이벌나이트 1,100명, 러브소나타 1,548명), 온라인 참석자 2,219명(리바이벌나이트 1,770명, 러브소나타 449명)이 참가했고, 일본인 참가자 168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러브소나타 ‘미야기’의 포문은 10월 11일(수) 리바이벌나이트(한일연합성령집회)가 열렸다. 한국과 일본 성도 1천1백여 명이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일본 복음화를 꿈꾸며 함께 부르짖었다.

리바이벌나이트에서는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 미디어본부장) ‘처음부터 힘들지는 않았습시다(창 1:1)’, 다카하시 켄 목사(니시타가성서법테스트교회 담임) ‘NEW BEGINNING(렘 2:6-8)’을 주제로 강의했다. 한일연합찬양팀(한국 ‘Holy Impact’, 일본 ‘Praise Station’)의 찬양도 백미였다.

최성민牧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창조 섭리”라며 “세상은 사랑을 잃어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섭리를 따라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카하시 켄牧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0월 12일에는 센다이 선플라자호텔 아오바홀에서 소셜 액션 세미나 ‘새로운 경치를 보다’, 패널 디스커션 1, 2부,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 ‘사명의 바톤을 잇다’가 이어졌다. 크



러브소나타 ‘미야기’ 한국 봉사자들이 일본 참가자들을 축복하고 있다.

리스천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교회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다음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등을 나누는 귀한 자리였다.

소셜 액션 세미나 ‘새로운 경치를 보다’에서는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牧사는 “사회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토모 유키마사 목사(시오가마성령교회)는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다’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오토모 유키마사牧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해야 한다”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패널 디스커션 1부에서는 이기훈 목사, 유진복 교수, 요코야마 아리카 목사, 아미티카 히로 목사가 소셜 액션 세미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패널 토의했다.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 ‘사명의 바톤을 잇다’에서는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가 ‘차세대 신앙성장과 교회교육(딤후 2:2)’을 주제로 강의했다. 노 목사는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아이들이 매일 듣고, 고백해야 한다”면서 “어른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권면했다.

패널 디스커션 2부에서는 노희태 목사, 나카노 마사요시 목사, 마츠다 마키토 목사, 코타 요시코 자매가 토론했다. 한국 선교사와 일본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차세대 신앙 성장

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는 테이블 토의도 했다.

12일 저녁, 대망의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렸다. 가수 루나, 박진영, CRUX, 하다쉬 뮤직,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서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라이트는 결신의 순간이었다. 소라토리의 연주와 사랑챔버의 공연으로 참가자들을 예수님께 초대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인 참가자 168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미호 마사코 성도(아치호온누리교회)는 “쓰나미의 아픔이 있는 센다이가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경험했다”면서 “러브소나타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일본인들의 마음에 심겨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노마카 마키코 성도(고베다카쿠라채플)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러브소나타에 매년 참가하고 있다”면서 “러브소나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했다.

김지혜 권사(서초B공동체)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일본인과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일본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 홍하영, 김다애 기자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들

만남과 하나 됨 그리고 기쁨!

33번째 일본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미야기’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초대됐다. 모두 보석보다 귀한 한 영혼이지만, 더욱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주인공은 일본의 다음세대인 청년들과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들이다.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그들을 초대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만났다. 부천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부천 차세대 워십팀이 쇼케이대학교 학생들을, 사랑챔버가 일본의 장애인들을 만났다.

러브소나타 ‘미야기’에 초대된 일본 청년들은 미야기현 나토리시에 있는 쇼케이대학교 재학생들이다. 쇼케이대학교는 13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쇼케이대학교가 있는 나토리시는 센다이시와 붙어 있다. 쇼케이대학교의 원래 주소가 센다이시였는데, 학교 규모가 커지면서 부지를 옮겨 나토리시로 행정 구역이 변경됐다. 쇼케이대학교는 센다이시에서 세 번째로 세워진 대학교이자 나토리시에 있는 유일한 대학교다. 센다이시와 나토리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기독교 학교이기도 하다. 쇼케이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모두 크리스천은 아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부천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부천 차세대 워십팀이 쇼케이대학교를 방문했다.

쇼케이대학교 교정에 들어서자마자 “와!”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파란 하늘과 초록빛 잔디밭, 흰색 건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쁜 공원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교정을 거니는데 한쪽에서 기



부천 차세대 워십팀이 쇼케이대학교 강당에서 워십 공연을 하고 있다.

분 좋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부천 차세대 워십팀이 쇼케이대학교 강당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소리를 따라 들어갔다.

강당에 쇼케이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 부천온누리교회 성도들, 부천 차세대 워십팀이 있었다. 부천온누리교회 차세대 워십팀이 멋진 워십 공연을 선보였고, 쇼케이대학교 학생들은 공연을 보는 내내 감탄했다. 부천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쇼케이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뱃지 만들기과 점심을 하면서 교제했다.

남예지 학생(부천온누리교회 소년부)이 쇼케이대학교 학생들에게 인사했다.

“쇼케이대학교 언니 오빠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워십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춤을 추며 드리는 찬양을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오빠들이 러브소나타 미야기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복 교수(아동복지학)가 온누리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러브소나타 미야기는 일본의 다음세대와 한국의 다음세대가 만나 교제하고, 하나 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일본을 향한 온누리교회의 관심과 사랑도 감사합니다.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쇼케이대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흘려보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챔버, 감동 그 이상의 감동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마도카’라는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이 있다. 마도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큰 피해가 있었다. 지진과 쓰나미로 건물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오갈 데 없는 형편이었다. 그때 장애인들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 주민들과 기업의 후원으로 무너진 건물을 재건할 수 있었다.

마도카에서는 레스토랑과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31명이 일하고 있다. 마도카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작은 농장에서 음식에 들어갈 채소를 재배하고, 도시락을 포장하고, 레스토랑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빵과 쿠키를 직접 만든다. 항상 밝은 미소와 경쾌한 목소리로 일하는 그들 덕분에 마도카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마도카 장애인들이 만든 쿠키 맛도 일품이다.

마도카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사랑챔버가 멋진 공연을 준비해서 마도카를 방문했다. 사랑챔버의 연주는 언제 들어도 감동이지만, 마도카에서 보는 공연은 감동 그 이상의 감동이었다. 사랑챔버의 공연을 보는 마도카 장애인들과 직원들도 크게 감동하는 것 같았다. 어깨를 들썩이며 춤추는 사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서로 맡은 통하지 않아도 그 순간을 함께 즐기고 있었다.

토모리 마츠키 대표(마도카 대표)가 사랑챔버의 공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일본의 크리스천들은 외부와 교류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온누리교회 사랑챔버가 먼 길을 날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챔버의 공연과 온누리교회 스태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짜 크리스천들을 만났습니다. 이와 같은 교류가 많아지면 일본 사람들도 교회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온누리교회와 사랑챔버에 감사합니다. 마도카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사랑챔버 단원들도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하루하루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 홍하영, 김다예 기자

현장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

제 두 팔과 두 다리가 상하기 전까지

“일본은 우상이 많은 나라고, 선교의 열매가 적은 곳입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파서 러브소나타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주셔서 올해로 13번째 러브소나타에 참석했습니다. 제 두 팔과 두 다리가 상하기 전까지 러브소나타를 계속 섬기고 싶습니다. 러브소나타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일상에서 지쳤던 부분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줍니다. 저에게 러브소나타 미야기는 매우 특별합니다. 전도대상자였던 탈북민 형제와 같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러브소나타가 그 형제의 삶에 ‘New Beginning’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참석했습니다. 함께 러브소나타를 섬기면서 그 형제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형제가 복음 통일의 주역이 되는 선교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본이 변하면 아시아가 변한다’는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작은 섬김으로 일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일본인 한 사람이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본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강인 집사
(OCC공동체)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거룩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챔버가 러브소나타 ‘미야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장애인 직업 훈련시설 ‘마도카’에도 방문해서 교제하고 연주했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마도카에서 보낸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을 견학하면서 일본 장애인들의 터전을 봤고, 그들이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봤습니다. 모든 작업 과정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실행하는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도카에서 사랑챔버의 연주는 일본 장애인들의 열정에 대한 화답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으로 소통하는 기쁨이 정말 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험하는 부요한 사람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챔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거룩한 반전을 이루시며, 사랑챔버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챔버의 연주와 준비 과정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다시 시작할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일본 땅과 일본인 모두 하나님 것임을 기억합니다. 일본에 사랑챔버를 보내신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들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챔버와 러브소나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상규 단원, 박유선 집사
(사랑챔버 가족)

순교 역사가 고스란히...

‘오카고 기독교 순교자 기념 공원’

미야기현과 멀지 않은 이와테현에 ‘오카고 기독교 순교자 기념 공원’이 있다. 오카고 순교자 공원은 도쿠가와 막부의 기독교 탄압으로 순교한 성도 309명을 기리기 위해 조성했다.

약 400여 년 전, 오카고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오카고가 속한 동북지역은 일본 각 지역에서 기독교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수많은 크리스천이 제철업에 종사하며 생활하던 곳이다. 그러나 기독교 탄압이 일본 동북지역까지 미쳤고, 성도 309명이 순교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순교자들의 후손 6대까지 끔찍한 기독교 박해와 차별을 받았다. ‘후미에’ (예수님 사진을 밟아서 불신앙을 증명하는 것)를 하면서 크리스천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고, 300여 년 동안 철저한 감시를 받았다.

1996년 이와테현에서 오카고의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오카고 기독교 순교자 기념 공원’을 만들었다. 오카고 순교 공원에 가면 오카고 지역의 기독교 선교와 부흥, 박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순교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도관과 순교자들이 처형당한 순교지 등도 있다. 순교자 309명을 기리는 309단의 계단이 오카고 순교 공원의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찾는 배우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정해져 있나요? 배우자에 대해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적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신학생 시절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제목을 3백 개 넘게 적어서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 기도제목이 응답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도전이 되고, 따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라면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 감정,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기적으로 배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의 뜻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포함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과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갖는 의미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모든 마음을 존중하시고, 선택을 주목하시고, 감정을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소통하며 기대하는 게 중요하다.

결혼 전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었다.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포기하고 낙담이 찾아올 무렵,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마트에서 혼자 아리저리 돌아다니며 물건을 고

었다. 내가 이렇게 배우자를 고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최고의 배우자를 주시기 위한 목적보다 함께 배우자를 찾아다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질문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

자에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 기도제목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향한 생각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한 모든 제목이 응답이 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도한 모든 제목이 거의 응답되지 않았지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한다.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 내가 기도하는 배우자 기도제목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은 배우자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배우자 기도제목을 적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좋다.

동시에 끊임없이 나의 배우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송동주 전도사
(J4U공동체)

“내가 바라는 배우자 기도제목을 적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좋다. 동시에 끊임없이

나의 배우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르던 모습이 떠올랐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살펴봐도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트에 함께 온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부모님과 함께 오순도순 쇼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혼자 고민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물건을 사기 위한 목적보다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물건을 고르는 시간을 원하셨다. 그런데 나의 시선은 오로지 물건에만 있

자는 분명히 있다. 그 배우자를 하나님과 함께 찾아 떠날 때 주어지는 은혜다.

배우자 기도제목을 적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가 바라는 배우자를 만나야만 한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배우자 기도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기도하는 일이 진정한 의미가 있으면 모든 기도제목과 다르게 응답되더라도 하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대화의 네 가지 문제 유형

부부는 대화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다. 결혼식에서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대화파트너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 부부는 감정이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렵고 서먹할 때도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대화에 문제가 있는 부부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게리 채프먼(Gary Chapman)의 저서 《부부학교》에서는 병든 대화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비둘기형, 매의 유형, 올빼미형, 타조형이 그것이다.

비둘기형의 신념은 자신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침묵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좋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회피형 대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생활방식 등에서 크고 작은 충돌과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고쳐줬으면 하는 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평안을 가장 귀한 가치 신념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대화의 태도가 아니다.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이 들더라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건강한 대화 태도다.

비둘기형이 회피형의 대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와 반대되는 성향은 매의 유형이다. 매의 유형 대화 태도에서 두드러진 것은 상대를 향한 비난이다. 모든 일에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지 않고, 상대를 지적하고 불만과 비난을

늘어놓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한다. 늘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의 원인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거칠게 말하는 유형이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와 같이 부부관계를 따뜻하게 해주는 표현들이 있다. 특히 미안하다는 표현을 할 때 부부관계가 훨씬 깊어진다. 배우자의 잘못을 자주 지적하는 습관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의 말투에 대해 온화하게 지적해주는 게 필요하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이 역할을 해주면 부부는 단순히 대화의 성장을 넘어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것이다.

상대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매의 유형이 있다면 올빼미형은 논리를 따지는 대화에 익숙한 유형이다. 올빼미형의 대화도 병든 대화 유형이다. 올빼미형이 가지고 있는 대화의 신념은 감정은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유형은 논리, 이성, 옳고 그름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회생활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생활에서 올빼미형으로 대화한다면 배우자의 마음이 상할 수 있다.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것이다. 올빼미형에게 중요한 것은 이성적이고,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감정은 매우 부

수적인 거리는 생각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유형이다. 자신도 모르게 올빼미형 대화 방식을 갖고 있다면 논리와 분석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감정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올빼미형이 감정을 느끼는 통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해의 틀을 거쳐서 마음으로 느끼는 방식이다.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고,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이 표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감정적인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부부의 대화가 회복될 것이다.

올빼미형이 논리를 추구하는 유형이라면 타조형은 회피형과 산만형이다. 현재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을 피하면 좋아질 거라는 학습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타조형과는 무겁고 깊은 주제에 관해서 나누기가 어렵다. 불편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어렵다. 또한 불편하고 무거운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유형이다. 조금의 불편한 문제가 대화의 주제로 떠오르면 다른 주제로 대화의 흐름을 틀어버리려고 시도한다. 그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지하고 깊은 대화의 경험은 빈약한 상태다. 많은 대화의 내용과 시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깊고 적절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배우자와 마음이 연결되는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긍정적인 대화 방식이다. 대화 유형이 타조형이라면 배우자와

깊은 연결감을 누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부부는 서로 깊이 대화하는 관계다.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은 숨김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의미다. 건강하고 성숙한 대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둘기형, 매의 유형, 올빼미형, 타조형의 대화 방식을 고쳐야 한다. 비둘기형은 불편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매의 유형은 비난을 멈추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상대방의 허물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올빼미형은 완벽과 이성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물어볼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타조형은 대화에서 도망가지 않고, 불편해도 끝까지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대화 유형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으로 고정된 대화 유형을 계속 사용하면 부부는 서로 대화하는 게 불편해질 것이다. 자신의 유형을 인식하면서 상대의 마음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화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 30주년 기념 포럼

10월 25일 오전 10시 서빙고 두란노홀

온누리M미션에서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 30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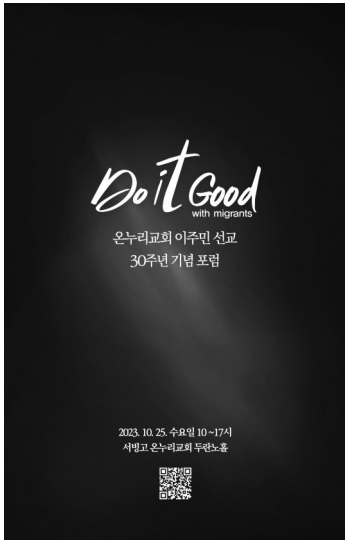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 30주년 감사예배에서는 신철우 장로 기도, 외국인 목회자 특별찬양,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기념 포럼에서는 송인선 대표(경기 글로벌센터)와 도주명 목사(통합총회 이주민 선교)가 한국 이주민 정책 방향과 온누리교회의 역할 및 온누리 이주민선교에 기대하는 바에 대해 강의한다. ‘온누리교회 외국인 사역자 이야기’,

‘온누리 융합선교’, ‘새롭게 나아가는 사역’,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등을 주제로 이주민 사역에 대한 간증 및 강의도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이주민 선교는 1993년 외국인 근로자 돕기 바자회에서 태동했다. 이후 온누리M미션을 조직하고, 경기도 안산에 온누리M센터를 설립했다. 지금은 국내 7곳에 M센터가 세워졌다. 온누리M센터에서는 이주민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주민들의 자립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

문의: 031-491-965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포천 하랑센터 이전 감사예배

이기훈 목사, 포천 하랑센터 스태프 등 120명 참석

‘포천 하랑센터 이전 감사예배’를 지난 10월 8일(일) 오후 3시 새 하랑센터(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31 3층)에서 드렸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 포천 하랑센터 스태프, 요셉청년부 청년, 다문화가정 지체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이기훈 목사가 ‘세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설교했고, 포천 하랑센터 학생들의 특송이 이어졌다.

박승호 센터장(포천 하랑센터)은 “포천 하랑센터 이전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CGN, ‘잇쉬의 서재2’ 첫 선

매주 수요일 기독교 OTT ‘풍당’에 콘텐츠 업로드

CGN이 ‘잇쉬의 서재2’ 첫 선을 보였다. ‘잇쉬의 서재2’는 기독교 고전을 소개하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기독교 OTT ‘풍당’에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CGN 유튜브 채널과 TV로도 시청할 수 있다. ‘잇쉬의 서재2’에서는 팀 켈러, 필립 안시, 짐&엘리자베스 엘리엇, 조나단 에드워즈,

존 번연의 작품과 그들의 삶을 살펴본다. 배우 한혜진, 권오중, 정태우가 ‘텔리’로서 기독교 고전 서적을 생동감 있게 소개하고, 가수 해림, 배다해, 배우 김정화, 문지인, 인플루언서 황태환이 텔리가 전하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듣는 ‘리스너’로 활약한다.

문의: 02-796-2243

“예수님 만났습니다!”

2023 하비스트, 이주민 80여 명 결신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2023 Harvest(하비스트)’에서 이주민 80여 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지난 9월 29일(금)부터 10월 1일(주일)까지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열린 2023 하비스트에는 몽골, 네팔, 필리핀,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17개국에서 온 이주민 550여 명이 참석했다. A형제(캄보디아, 군산M센터)는 “2023 하비스트 집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환상을 봤다”고 고백했고, B자매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무엇인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큰 감동이 있었다”고 간증했다.

/ 홍하영 기자

〈생명의 삶〉잠언 개관 영상 제작

두란노서원 유튜브 채널

두란노서원에서 〈생명의 삶〉잠언 개관 영상을 제작했다. 두란노서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생명의 삶〉잠언 개관 영상은 올해 10~12월 QT 본문인 〈잠언〉을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는 영상이다. 권호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교수, 〈본문 중심의 말씀 묵상〉저자)가 강의한다. 문의: 02-2078-3200



두란노어머니학교 10월 P.P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P.P(Power Prayer) 기도회가 10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아론홀에서 열린다. 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

할 수 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P.P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문의: 02-2182-9114

두란노어머니학교 수강생 모집

129기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좋은 어머니를 꿈꾸는 성도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1월 7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두

란노어머니학교는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182-9114

NGO 더멋진세상, 마다가스카르 지원

이키안자 마을 학교 및 우물 추가 건설

NGO 더멋진세상이 마다가스카르 암팡가베시 이키안자 마을에 학교와 우물을 추가로 건설한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2020년 아키안자마을에 교실 다섯 개와 교무실 한 개로 이루어진 초등학교와 화장실, 우물 3개를 건설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도 학용품과 가방, 위생용품 등을 지원했다.

지난 9월 21일 3년 만에 다시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한 NGO 더멋진세상은 현장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학교 건물과 우물 한 개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김광동 대표(NGO 더멋진세상)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더 큰 꿈을 꾸며 훌륭한 다음 세대로 자라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11월 4일부터 매주 토 오후 7시 도곡교육관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4일부터 동시 개강한다.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도곡교육관 충성홀(부모반)과 화평홀(청소년반)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회복사역 홈페이지

(recovery.onnuri.org) 또는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신청 학생의 부모이다. 회비는 부모반 1인 12만 원(부부 20만 원), 청소년반 1인 12만 원이다.

문의: 02-793-9686

010-4548-1522

256기 온라인 결혼예비학교

256기 결혼예비학교가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커플, 예비부부,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수강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주차별로 2강씩 업로드된다. 게시일로부터 10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교재는 커플당 1권씩 PDF 파일로 제공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078-3263

사회선교본부 사역자 모집

사회선교본부 다문화사역팀과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팀에서 사역자를 모집한다.

다문화사역팀은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다문화 사역 기획, 다문화 가정 섬김, 다문화 청소년 멘토링 등이다.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팀은 위기가정을 찾아서 지원하는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를 모집한다. 김희성 팀장(010-6214-5432)에게 ‘위기가정 발굴팀 지원자’라고 이름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434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아제르바이잔(아사모)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줌터
문의: 010-9976-3100

인도선교사 기도모임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2735-3807

몽골(아몽) 기도모임
온라인: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대면: 매달 1회 오후 7시 30분
문의: 010-9417-0759

방글라데시 기도모임
매달 셋째 주일 오후 4시
문의: 010-5071-0144

일본 기도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신관 302호
문의: 010-9349-5631

소아시아(튀르키예) 기도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5225-5522

타사모(튀르키예)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Acts29홀
문의: 권역별 기도팀

살렘 이스라엘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시온홀
문의: 010-2930-2322

인도 기도모임
격주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4516-4710

파키스탄 기도모임
매달 둘째, 넷째 주 토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3212-6902

아랍과 페르시아 기도모임
분기별 1회 주일 오후 4시 선교관 202호
문의: 010-3259-3561

다문화 차세대 선교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JDS홀
문의: 010-6422-8376

베트남 기도모임
매달 1회 온라인
문의: 010-2944-8123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 월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장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땅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안재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타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 월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서빙고 헬로맘스쿨 모집
일시: 10월 13일~11월 17일 매주 금 10시~12시
대상: 예비 신부, 임신부, 임신 준비 중, 자녀, 손주 양육 중인 모든 여성
회비: 2만 원
문의: 총무 010-7233-7280

2024년도 온누리교회 원두 납품업체 입찰 공고
품목: 커피 원두
구매: 매월 250~300kg
장소: 서빙고 커피숍, 베이커리, 사이닝글로리 / 양재 커피숍
계약: 2024년 1월 1일~12월 31일(1년), 1년 씩 2회 연장 가능
제출: 10월 20일 (금) 17:00
문의: 02-3215-3176
*기타 상세 사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참조

서산온누리교회 전임교역자 청빙
분야: 전임 사역자(행정, 예배, 청년부, 찬양인도 등)
자격: 정규 대학 및 신학대학원 MDiv. 졸업자(초교과), 43세 이하, 1층 보통 운전면허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cloper@naver.com
문의: 오진수 목사(010-5383-1104)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중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중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중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 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영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TP43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훈련: 2024년 1월 2일~26일
장소: Acts29비전빌리지
자격: 선교지에서 1~2년간 사역하기를 원하는 자
접수: www.visionvillage.org 홈페이지 신청서
마감: 12월 1일(금)
문의: 031-331-8181, 8213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땅(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아부, 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광고

2024년 온누리교회 미화관리 용역업체 선정 공고

업무: 건물 내외부 및 주변 외곽 미화관리 및 지원,
기타 지정 부속 건물 청소

인원: 서빙고(13명), 양재(15명), 양지(4명)

계약: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2년)

마감: 10월 28일(토) 17시까지

문의: 양재온누리선교재단 관리팀 박상규(02-570-7501, 010-3309-9243)

*기타 상세 사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참조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현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재정

모바일현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현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현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술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타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결혼·소천

■ 결혼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을
김대은, 고은혜(목양중앙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김대엽(온누리교회)
고 한성수, 이금주(한소망교회 권사)의 딸
한이름(온누리교회)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을
고 이원규, 지선희의 아들 이진호(온누리교회)
고 윤호근, 노미순(새중앙교회 집사, 권사) 딸
윤세은(온누리교회)

■ 소천
10/6(금) 일산 송경림 권사 부친상 고 송달언
10/6(금) 관악금천 문지영 성도 모친상, 강병철 집사
고 빙모상 김정숙
10/6(금) 마포 현해탄 권사 시모상 고 김경애
10/9(월) 분단A 구정희 집사 부친상 고 구본엽
10/9(월) 송파B 임현수 집사 모친상 고 이정희
10/10(화) 가정사역 최라라 성도 부친상 고 최정모
10/10(화) 이수 김선희 성도 모친상 고 한영숙
10/12(목) 양천 오선영 성도 부친상, 노동식 성도 빙부상
고 오병태

독서의 계절 새롭게 돌아온

잇쉬의 서재2

팀 켈러, 필립 안시, 짐 & 엘리자베스 엘리엇, 조나단 에드워즈, 존 번연

“현대부터 고전까지”
더 풍성해진 기독교 저자와 책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매주 수요일 품당 & 유튜브 업로드



텔 러 한혜진 권오중 정태우 리스너 헤림 김정화 배다해 문지인 황대환

